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대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와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어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태도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609,1300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한국 YWCA

2016년 12월호
December
Vol.536

- 이달의 생각**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 성탄예배**
거짓에 맞서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 기획**
YWCA 10대 뉴스
- 이달의 이슈**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한국 '촛불'



부드러운 리더십 제29대 회장 손인실



손인실(1917~1999)은 제29대, 30대 대한YWCA연합회(지금 한국YWCA연합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를 지낸 여성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다. 임시정부 의정원 원장을 지내고 대한적십자회를 창립한 독립운동가 손정도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딸이다. 만주 강제이주 농민을 보살피기 위해 길림으로 간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고 이화여전에 입학하면서 YWCA와 인연을 맺었다.

서울YWCA 이사(1948~1950)를 거쳐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1967~1973)을 역임했다. 당시 김애마 회장이 1년 반 정도 임기를 남겨놓고 병으로 물러나자 1975년 5월 물려받아 1982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회장 재임기간 도배, 타일, 페인트 분야를 여성직종으로 개발해 훈련하고, 소비자운동이 인권운동임을 강조하며 여성권익을 옹호하는 소비자운동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넓은 포용력과 따뜻한 성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존경을 받았다. YWCA 회장으로 있던 시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최대 암흑기였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조아라 광주YWCA 회장이 보안대 지하실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직접 찾아갔다. 동지를 구하기 위해 어떤 위협도 감수할 만큼 의연하고 의리가 두터웠다.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부녀국장,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위원회 부회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한국여성개발원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시절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재회를 위해 노력했다. 그와 동생 손원태 박사, 부친 손정도 목사가 만주 시절 김일성 주석과 각별했던 인연이 김 주석 회고록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6.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우리로 하나되게 하소서' YWCA 성탄예배 촛불
(사진 안정희)

2016년 12월 주요일정

- 12월 8일
한국YWCA연합회 성탄예배
- 12월 9일
질가래! 핵발전소 10만서명 기독교본부 발족식
- 12월 19~20일
김필레 리더십캠프(중학교)
- 12월 26~27일
김필레 리더십캠프(고등학교)

제53권 제10호 통권 536호

2016년 12월 22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민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_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 김은주
- 05 **말씀 묵상** 하나님의 개입 | 장상
- 06 **성탄예배** 거짓에 맞서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 편집실
- 07 **기획** 2016 한국YWCA 10대 뉴스 :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 편집실
- 12 **이달의 이슈**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한국 '촛불' | 정용인
- 14 **인터뷰** 세계YWCA 리타 무암보 프로그램 국장 | 편집실
- 16 **강연**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일곱 가지 과제 | 편집실
- 18 **청년**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 박소영·정진아
- 20 **이달의 현장①** 서울YWCA 돌봄사업 50주년 포럼 | 김혜옥
- 22 **이달의 현장②** YWCA 중견실무자 해외연수 | 정은영
- 24 **이달의 현장③**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 최지영
- 26 **회원활동 현장을 찾아서** YWCA와 시민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 | 한혜선·김정민·김상희
- 28 **원로에게 듣는다** 정정자 청주YWCA 명예이사 | 편집실
- 3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판도라' | 원영희
- 32 **청년기자단 활동보고** 청년의 눈으로, 한걸음 더 | 김보영
- 33 **역사속 YWCA** '위장결혼식 현장' 인권현장 표지석 | 편집실
- 34 **연합회 소식**
- 38 **회원YWCA 소식**
- 47 **일정** 12월, 1월, 2월의 한국YWCA
- 49 **2016 월간(한국YWCA) 목차 색인**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김은주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그동안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과 헌정유린은 분노를 넘어 수치심과 자괴감마저 들게 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다. 탄핵소추안에 의하면 이러한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 권력과 정책을 비선실세들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이라던 촛불이 햇불이 되어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여섯 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에 나온 어린 소녀부터 할머니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시쳇말로 기쁘다. 기쁘고도 슬프다. 허약한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 슬프고, 또 그 민주주의를 다시 희망으로 만들어 줄 촛불이 있어 기쁘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성찰과 비판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립된 개인이나 이기적인 개인이 아니라 소통하고 연대하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우리'에 의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한지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과

정에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제의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촛불이 지향하는 것은 대통령 1인과 소수 비선실세의 범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최악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우리 안의 '수많은 그들'과 싸움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최순실들'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 공익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오만과 독선, 이기심과 탐욕, 무지와 불통, 혐오와 편견과의 싸움을 통해 이들로 인해 병든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헌정사상 최초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 하야와 즉각 퇴진을 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쏟아지는 여성비하와 조롱에 맞서야 하는 이중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여성들의 대통령 하야와 퇴진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한 여성들은 대통령의 범법행위를 여성의 이름으로 은폐하여 여성을 모욕하는 행위나 여성혐오를 조장하려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혐오든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개입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의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인류의 타락한 상황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로마서 1:24, 26, 28절). 성탄은 타락한 세상을 내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은 인류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구원 사건에는 그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를 동반합니다. 창조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세계 청지기이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인격자로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두렵고 놀라운 말을 들었으나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여인의 허물을 알게 되나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개입의 역사에 쓰임 받은 인물은 의로운 자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성탄의 축하객은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누가복음 3장 10절). 그들은 사막길을 달려온 용기와 충성과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2016년 베들레헴 사건에는 누가 요셉이며 마리아이며 목자들입니까?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개입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것이 성탄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욕구를 거슬러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부끄럽고 어리석고 염려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환부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는 신호입니다. 1884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1922년 이 땅에 YWCA가 시작된 것은 이 땅의 여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은 북한으로 향할 것입니다. 북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의 감격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로운 삶,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YWCA 회원의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맞서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16년 YWCA 성탄예배가 12월 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우리 소망을 네 개의 초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불의와 부정의함, 혼란과 상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첫 번째 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며’ 두 번째 불을, ‘아기 예수와 만남을 통해 화해를 이루었듯 원수된 이들과 진심으로 만나며 화해’를 바라며 세 번째 불을, ‘우리로 하나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네 번째 불을 밝혔다.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밑알이 되고, 편견과 차별로 소외받는 이들과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구했다. 장상 목사가 ‘하나님의 개입’을 주제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예배자들은 ‘소망과 나눔’에서 성탄의 뜻을 새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하며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평화의 빛을 전하는 한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고요함을 주소서

김재화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하늘에서 내려 보는 지구, 그 아름다움이며 인간의 모습 제의한 그림이 더 깨끗하니 그렇게 창조하신 땅에 어울리는 삶 꾸꾸신 것을 큰 별로 탄생하신 주님 아니면 우리는 몰랐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때 묻은 얼굴들의 표정에도 위로해 주소서 잠재워 주소서 우리의 아픔을 비로소 고요의 성스러움에 떨어 청결하게 감동의 찬송 맑은 노래로 울리게 하소서 요동치는 곳곳의 분쟁들 내려 보셨으니 나라마다 사람마다 말리 부른 정의들이 기쁜 날 하나로 굳게 묶어주시어 묵상의 밤 주소서, 고요한 밤을

2016년 12월 8일 성탄예배에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올해도 다사다난했다.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어느 때보다 굵직한 이슈가 쏟아졌다. 특히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왔다. 국민의 의로운 분노가 전국 곳곳에서 촛불로 타올랐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 속에 YWCA는 탈핵생명운동을 비롯해 평화통일운동, 돌봄정의운동, 성평등운동, 청소년·청년운동을 펼치는데 힘을 쏟았다.

1 YWCA 시국선언 발표 ‘철저하게 수사하라’



2016년 최대 화두는 단연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다. YWCA는 지역과 청년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과 비선실세들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10월 31일 안산YWCA, 진주YWCA에 이어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와 대학YMCA 전국연맹, 대구YWCA가 11월 1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청주YWCA는 11월 2일 대학·청년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한국YWCA 연합회가 11월 3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의 성역없는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회개했다. 광주YWCA도 같은날 박근혜 퇴진 기독교기도회를 열었다. 전주YWCA는 시민공동시국선언을 발표한 11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안양YWCA, 제주YWCA, 인천YWCA, 남원YWCA, 목포YWCA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2 국내 최대 지진과 탈핵운동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치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올해도 계속되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5.8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나면서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탈핵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YWCA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노후 핵발전소가 동중단을 촉구했다. 9월 27일엔 서울 세종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조속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인 백지화 사업을 긴급사안으로 결정했다. 동부지역 15개 YWCA 회원

300명은 11월 14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평화행진과 차량 퍼레이드를 펼쳤다. 2014년 시작한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올해 말로 140회를 맞는다.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 서명운동도 펼쳤으며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 운동본부’, ‘잘가라! 핵발전소 10만서명 기독교본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부산YWCA는 5월 시민태양광발전소 ‘햇빛모아 발전소’ 1호를 세웠다.



3 '희망 세상'을 위한 YWCA 전국회원대회



전국 52개 YWCA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2016년 전국 회원대회는 '생명의 바람으로 시대부름에 응답하여 희망세상을 만들겠다'는 10만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며,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장이 되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8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경주시 더케이경주 호텔에서 청년·돌봄·다문화 회원, 일본YWCA 회원 등 1,111명이 참석했다. 320여명의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기관 등을 격려한 'YWCA상' 시상식과 94분 토크쇼의 감사 한마당, 지역별 활동나눔과 영성으로 하나된 나눔 한마당, 소통과 다양성으로 희망을 찾는 비전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번엔 어느 때보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참가했다. 전체 참가자의 13.5%인 150여명의 청소년·청년들이 참가해 '젊은(Young) 운동체'를 지향하는 YWCA 정신을 실천하고, 세대를 이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탈핵'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강조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탈핵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우리 사회 차별, 폭력, 불안을 넘어 평등한 세상, 존중하는 세상, 안전한 세상을 일구는 정의, 평화, 생명의 세계시민이 되겠다는 회원선언을 했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청소년운동, 청소년교육



올해 청소년들은 Y-틴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 바로알기 운동에 주력했다. 지역별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부와 토론, 역사관 탐방을 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만나기, 한일정부 합의에 대한 문제점 알아보기,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했다.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도 적극 펼쳤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NGO컨퍼런스에 Y-틴 청소년(대전, 순천, 울산, 청주, 충주) 30여명이 참가해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펼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500여명의 세계시민 서명을 받았다. 이예지 Y-틴 전국협의회장은 YWCA 포럼 발표자로 나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해결임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창립부터 청소년 리더십 육성에 주력해온 YWCA는 올해도 키다리학교, 씽크머니, 다래교실, 애들아 밥먹자 등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자기개발을 도왔다. '청소년 경제금융교실' 씽크머니는 25개 YWCA에서,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모색을 돕는 다래교실은 11개 YWCA·협력기관에서 진행되었다.

5 청년성 회복의 신호탄, 대학·청년Y 재건



올해 1월 회원YWCA 중심의 청년조직을 전국 단위로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중단된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를 6년 만에 재건했다. 2016년 청년운동 주제를 '청년이 주체가 되고 연대하는 사회 만들기'로 정하고 청년이슈와 정책 발굴, 대응에 힘썼다. 특히 70명 넘는 대학·청년Y 회원들이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YWCA 청년성을 회복하는 신호탄이자 지역과 세대를 잇는 역할을 했다. 올해 처음 구성된 청년홍보기자단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의 시각과 감각으로 YWCA 활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했다. 청년들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가 단절된 가운데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았다. 서울YWCA는 남북청년 통일프로젝트 '평화통일 Already'를 통해 백두산 평화기행,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청주·충주YWCA 대학·청년Y 회원들은 철원 국경선평화학교로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부산YWCA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100년'을 주제로 새터민 남북 청소년이 함께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기행을 진행했다.

6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국제연대



'생명·평화·상생의 한반도'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국제연대는 올해도 이어졌다. 5월 28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일대에서는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해외 여성운동가와 한국 분단 1, 2, 3, 4세대 여성들이 참가하는 여성평화경기가 진행됐다. 경기지역 12개 회원YWCA가 공동주관했고, 대구와 청주YWCA에서도 동참했다. YWCA를 비롯해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평화심포지엄도 열었다. 전쟁과 분쟁에서 여성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주도자이자 역할자가 될 것이 강조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연대도 빛을 발했다. 제17차 한일YWCA청소년협의회가 '핵없는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8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열렸다. 제19회 한일YWCA협의회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전쟁과 핵문제의 정책결정에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한국YWCA는 올해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정분야 협의지위를 획득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국제활동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 돌봄 50주년과 돌봄협동조합



16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20대 국회에 바란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하는 특별법 제정하라!!

올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가사지원분야 11개 능력단위를 추가해 가사돌봄 분야를 직무직종으로 공인받아 업무표준화, 전문화에 기여했다. 돌봄노동자의 당사자 조직도 탄생했다. 2015년 6월 YWCA 돌봄협동조합 창립에 이어 지난 5월엔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사회적 돌봄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YWCA는 공공성을 지키며 돌봄운동을 지속하는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YWCA가 1966년 '시간제 가정부'를 가사직종으로 개발하면서 시작된 돌봄운동이 올해로 50년을 맞았다. YWCA는 반세기 동안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돌봄분야 직업군을 새로 만들고 교육했다. 1993년 노동부 지원을 받아 여성직업훈련 사업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열었다. 초기 11명이었던 YWCA 돌봄회원은 현재 전국 46개 YWCA에서 4,000명이 활동하는 규모로 확대됐

8 옥시사태와 소비자운동



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여성·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옥시 불매운동과 소비자피해보상촉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였다. 4월부터 본격화한 불매운동은 6월 24일 옥시 서울 본사 반품향의로 이어졌다. 판매실태 조사와 옥시제품 철수요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동참 요구 등으로 대형마트 전점 철수 결정을 이끌어냈다. YWC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청원을 위한 10만서명 운동을 벌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무려 5년간 판매되고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자고발을 접수해 소비자운동을 시작한 YWCA로서는 더욱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특히 사고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진상을 축소·은폐하고, 피해배상을 거부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간과할 수 없었다. YWCA는 한국소비자

9 한국여성지도자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

YWCA 지도자로서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티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올해 대상은 의료인이자 교육자로 헌신한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젊은지도자상은 입양문화 개선에 힘쓴 탤런트 신애라씨, 특별상은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았다. 나라 없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최빈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길여 총장의 역경과 아직도 사과는 커녕 한일 정부의 일방적 합의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은 우리 시대 진정한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생각하게 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들은 모두 상금을 기부해 그 뜻을 빛냈다. 이길여 총장은 Y-틴 장학금으로, 신애라씨는 홀트인산복지타운에 기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나비기금에 보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10 20년간 YWCA 정신을 살려온 '좋은 TV프로그램상'

올해로 20회를 맞은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좋은 방송을 권장하고, 방송인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2016년 대상은 EBS <다큐프라임>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 성평등 부문상은 SBS <8뉴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 생명평화 부문상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 특별상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가 수상했다. 또한 20주년 기념으로 역대 수상작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청자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베스트10'을 선정해 뜻을 더했다. 2015년 대상이자 베스트10의 유일한 보도프로그램으로 뽑힌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참사보도'를 대표해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이 4월 19일 시상식을 찾았다. 이날 손 사장은 "세월호 보도로 상을 받는 것은 착잡한 일"이라면서 "훗날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해 눈길을 끌었다.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한국 '촛불'

정용인 주간경향 사회문화팀장

10월 중순 미국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지인을 만났다. 최순실, 정유라 말, 정운회 비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는 미국 대선까지 이르렀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선전하는 게 불안하다"는 게 내 주장이었고, "대통령이 될 리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선거결과와는 예상과 달랐다. 트럼프가 이겼다. 신문·방송, 빅데이터, 여론조사기관, 사회과학의 예측 대부분은 틀렸다.

트럼프의 유세영상을 다시 찾아봤다. 트럼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카메라를 손가락질하고 관중들은 열띤 함성을 질렀다. "저 카메라는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언론이, 기성정당이, 기성제도가 자신의 지지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 기성제도의 실패

대선에서 이겼으니 트럼프의 주장은 옳았던 것일까. 미국 사회학자인 지인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도의 실패이자 민주주의의 실패였다. 제도의 실패 내지는 민주주의 대의제 시스템의 '오작동'은 처음이 아니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당이 집권한 것은 1923년 맥주홀 폭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1932년, 1933년 치러진 선거를 통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51.6%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시스템보다 비선을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실상'이 먼저 알려졌다면 당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최씨 일가의 '농단'은 아주 오래된 아이

템이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논란되었던 사안이 아닌가.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좌우파 내지 진보·보수 진영논리로 이 현상을 본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당선된 날 유럽 석학들이 브렉시트를 분석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가 주최한 '대전환기의 유럽-위기, 전략,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 배후에 놓인 '세계사적, 정치사회적 구조변동'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헝가리 태생의 기외르기 스텔 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 교수는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동일한 구조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세계화의 결과와 그 반작용을 중요한 배경으로 지적했다.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이해할 수 없는 변화와 압력에 사람들은 민족적 정체성(identity), 더 나아가 더 반동적인 방어적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의 경우 노동계급이나 노인들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노동계급 남성'을 주된 지지층으로 꼽고 있다.

통제되지 않은 세계화의 반작용

브렉시트를 주도한 영국독립당 나이젤 파라지와 제도 민주주의자에게도 배척받은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엔 공통점이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가 나라 경제를 잠먹고 있으며, 자신들이 형성해온 정체성을



제2차 촛불집회(11월 5일)에서 어린이가 불을 밝히고 있다.

해치고 있다는 논리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100여년 전에도 서구사회를 휩쓸었다. '시온 의정서'를 근거로 한 유대인 세계지배 음모론이 대표적이다. 유대인 금융자본의 세계지배 음모가 건강한 독일 또는 러시아, 폴란드 등의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역사의 반복으로만 설명하기엔 이 현상의 폭과 깊이가 그리 간단치 않다. '기성제도의 실패'만 놓고 보면 어느 때보다 집권가능성이 높아진 프랑스의 국민전선, 그리스의 사리사당, 스페인의 포데모스당뿐 아니라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런 세계적 조류에 해당한다. 좌파에서 우파까지 더 급진적이며 다양한 버전의 포퓰리즘 또는 신고립주의가 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양대 세계 대전과 비슷한 전쟁일까. 유럽석학들은 "경제전쟁 형태를 띠 수 있으며, 군사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보자.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게 보내는 메시지는 G2에서 유일 강대국으로 부상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다. 한미일 삼각동맹이란 이름 아래 미국-보통국가 일본-한국의 수직적 군사동맹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

나는 것처럼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와 방법으로 개시될 수도 있다.

한국의 촛불혁명, 포퓰리즘일까

그런데 지정학적, 정치공학적 동북아 정세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한국에서 벌어진 촛불 시민혁명이다. 11월 '촛불'이 없었더라면 12월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것이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는 한국과 일본이 한편을 먹고, 중국은 수용할 수 없는 평행선 구도였다. 하지만 달라졌다. 중국은 촛불 이후 한국에서 새롭게 구성될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드배치 계획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운명이 유동적이다.

'촛불혁명'은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이나 신고립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12월 3일 하루에만 232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힘은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 실패를 보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촛불혁명'은 보수정부 8년간 퇴행한 민주주의 제도와 '회복'을 강제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어떻게 평가할까. 공식논평은 나오지 않았지만 외교안보 라인에 강경파들을 대거 기용한 소식은 동북아 정세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2016년 겨울 '촛불'은 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1운동과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을 넘어 '가보지 않은' 역사의 길로 가고 있다. 5천만 국민, 아니 7천만 동포의 마음속에 결 '촛불'이 그 길을 제시할 것이다.

주도의 '리더십'에서 협력의 '팔로우십'으로 세계YWCA 리타 무암보 국장

세계YWCA는 여성의 리더십으로 정의, 평화, 자유, 인간존엄, 보건,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120여개국에서 YWCA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4명의 활동가가 일하고 있다.

편집실

“한국YWCA 탈핵운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계YWCA가 어떤 방식으로 탈핵운동에 결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국을 오게 되었다.”

세계YWCA 실무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리타 무암보 프로그램 국장이 11월 13일(일)부터 16일(수)까지 한국을 찾아 다양한 한국YWCA 활동현장을 경험했다. YWCA 국제리더십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회의 참석차 대만을 찾았다가 다른 아시아 국가도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가 한국이었다.

한국 탈핵운동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3박4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YWCA연합회 임원단·위원장 연석모임, 대학·청년Y와의 만남, 서울YWCA Y-턴 회원과의 대화, 청년·청소년 모임, YWCA-YMCA 연합예배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무암보 국장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등에 참여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리타 국장은 11월 15일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직접 참여했다. 그는 “한국의 탈핵운동은 세계YWCA에도 명성이 자자하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YWCA를 방문했으나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현장은 많지 않았다. 탈핵캠페인에 참여해보니 한국YWCA의 열정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5년 태국에서 열린 제28회 YWCA 세계대회에서 한국YWCA-일본YWCA가 공동발의한 ‘핵에너지와 핵무기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세계 각국 YWC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탈핵운동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펼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저녁엔 원전 재난영화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 <판도라> 쇼케이스에 참석했다. 그는 박정우 감독에게 <판도라>가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물었다. 주연인 김남길, 정진영씨 등 출연배우를 만나고 전화로 딸들에게 자랑을 하니 믿지 못했다는 에피소드도 전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쁘다

짐바브웨 출신인 리타 무암보는 2014년 8월부터 프로그램 국장으로 세계YWCA 활동을 시작했다. 어렸을 적부터 ‘가사, 양육, 노동으로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한 어머니 영향으로 소외된 여성을 만나러 다니는 게 생활화되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영국에 본부를 둔 International HIV/AIDS Alliance(국제에이즈연맹)에서 돌봄이 필요한 여성과 에이즈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의 정서안정, 치유를 지원했다.

“나의 리더십은 ‘섬김 리더십’이다. 다른 사람들이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일을 할 때 가장 기쁘다.” 세계YWCA 프로그램국은 세계 120여개 YWCA 운동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에서 중점운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과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세계YWCA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 인권, 지속가능성’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전략에 따라 세계YWCA는 여성폭력 반대운동, 여성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 프로그램,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와 청년포럼 등 국제연대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포럼은 세계 각지에서 온 25세 미만 활동가들의 토론과 네트워크 장으로 세계YWCA가 최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젊은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다

그는 “YWCA는 젊은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운동주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많은 나라를 다니며 YWCA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각 나라의 YWCA 운동은 세계YWCA 사무실 책상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슈를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수십



역대회장 사진을 배경으로 연합회 임원단과 면담하고 있는 무암보 국장

년간 이어진 콩고 내전으로 콩고 여성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클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 그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탄이 아니라 불안정한 국가상황이다. 한국 젊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뜻밖에도 경쟁사회에서 느끼는 좌절과 불안, ‘흙수저, 금수저’ 계급론과 같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없다는 자조감이었다. 청년·청소년 회원들을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이다.”

세계YWCA는 젊은 여성들이 리더가 되어 각자가 속한 지역과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여성 지도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세계대회 주제도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지도력’이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YWCA가 뭉쳐서 강력한 여성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는 매일 YWCA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한다.

“다양한 나라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세계YWCA가 일방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여성들이 처한 환경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정의, 평화, 생명’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앞에서 주도하는 ‘리더십’을 강조했으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팔로우십’으로 확장이 필요한 것 같다.”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연합회는 12월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두 번의 강연을 열었다.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강 교수는 책임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서 해석, 신학, 역사, 종교, 에큐메니칼, 지리정치, 정의에 관한 문해(literacy)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 요약이다.



강남순 교수가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과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편집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복음 25:35~36)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낯선 사람(이방인)에게 어떻게 환대를 베풀고,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는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것이다.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독일 사람들은 이웃사랑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잘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처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현대사회에서는 매번 질문하고 자기정황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 성서는 질문이다. 예수가 보여준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와 자신의 종교적 이해를 연계하면서 씨름하는 것을 뜻한다. 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모색하는 '구원클럽'이 아니다. 책임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되려면 인식론적 작업이 필요한데, 일곱 가지를 생각해보자.

YWCA 정신의 출발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먼저 '나는 왜 YWCA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자들은 특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이런 '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왜 YWCA 일을 하고 있는가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해야 하는가. 예수가 이 세상 여정을 마칠 때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주었고,

YWCA는 어떤 기독교를 확산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산물인 성서의 해석적 문해다. 예수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게 무슨 뜻인지 묻는 것부터가 해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 진리의 말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 산물은 시대가 바뀌면 변하는 상대적 진리가 있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묻는 신학적 문해다. 내가 생각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 신학적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니체가 죽었다고 말한 신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은 성서에서 보이지 않는 신, 자본주의화된 신, 성공의 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인간이 가진 유한한 체계 속에 신을 가두고 있는데, 갇혀진 신은 죽어야 한다.

셋째, 역사적 문해다.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 즉 억압자와 해방자로서 이중적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억압자, 해방자의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방자의 역할을 넓혀갈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 기독교는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에서 두 역할을 동시다발로 하고 있는데, YWCA는 어떤 기독교를 확산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넷째, 다른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종교적 문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이단이다. 정죄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신의 일이다. 심판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고, 우리 역할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고 가르쳤다. 누구를 배척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를 확산하라고 하지 않았다.

다섯째, 에큐메니칼 문해다. 에큐메니즘은 일치의 문제다.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말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에서 '하나'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됨으로 볼 수 있는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치는 폭력이다. 일치는 정의, 평화, 평등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하나님이다. 에큐메니칼 문해는 일치의 구조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불의와 차별에 어떤 기제가 작동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왜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여섯째, 지리정치적 문해다. 세계는 지역에 따라서 불균형, 빈곤, 정치폭력의 문제가 분산돼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나라들은 왜 가난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전쟁, 폭력, 갈등, 증오, 불의, 가난, 불평 등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정의에 관한 문해다. 왜 크리스천들은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불의와 차별, 억압에 대한 예민성을 갖지 않으면 정의를 모른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지, 무엇이 차별과 배제인지, 한국뿐 아니라 세계구조에서 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지도자는 지금 있는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보고, '되어야 하는 세계를 제시해야 한다. '되어야 하는 세계는 성서에 '정의가 강처럼 흐른다, 아이와 사자가 같이 뛰노는'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모든 갈등과 폭력구조를 넘어서는 세계다. 종교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사르는 것이다.

길은 다양하고 넓지만, 지도가 있으면 찾을 수 있다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이 11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서울YWCA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언론방송, 문화콘텐츠, 항공산업, 인터넷기술 분야 등의 직업체험 활동과 댄스뮤지컬 관람, 작품전시회, 다래교실 TED,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꿈을 응원했다. 9개 YWCA(논산, 안산, 의정부, 진주, 진해, 청주, 충주, 파주, 하남)와 지구촌학교,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등 11개 다래교실 학생과 교사, 실무자, 자원봉사자 등 155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후기

많이 떨렸지만 내 꿈을 발표하다

박소영 청주 가경중학교 3학년



청주YWCA 다래교실 학생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서 발표했다.

청주YWCA 다래교실은 주로 캘리그래피와 간판 디자인 수업 등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무대 위에서 다래교실에서 만든 나무판 캘리그래피 발표를 할 때 많이 떨리고 긴장했지만 금방 적응해 자신감을 갖고 발표할 수 있었다.

비전교육에서는 객관적으로 나를 분석해 내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나만의 비전을 만들고 세부목표도 세울 수 있어서 진로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수 있었다. 금융교육에서는 그동안 몰랐던 신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어려운 금융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 쉽게 돈을 쓰는 나의 소비습관도 반성하게 됐다.

1년간 다래교실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 준비하고, 다양한 경험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비전페스티벌은 그동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자리였다. 짧았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인연도 만들 수 있었다. 설렘으로 시작해 소중한 경험을 안고 온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었다.

제법 쌀쌀해진 11월 날씨. 1박2일간 열리는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꿈을 찾는 여행, 꿈을 그리는 지도’에 참가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온 다래교실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을 체험하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가 전부터 설렘.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참석한 첫째 날은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활동, 뮤지컬 관람을 했다. 둘째 날에는 IT 전문가와 기자 등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온 활동을 많은 사람들 앞에

교사 후기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빛을 내는 아이들

정진아 의정부YWCA 팀장



비전페스티벌을 닫기 전 조은영 위원장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 “여러분 비전페스티벌의 주제가 뭐가요? ‘Road to dream, Map for vision’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길은 다양하고 넓지만 지도가 있으면 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중국 청소년 기성이가 손을 번쩍 들고 나가서 답한 말이다. 기성이는 주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도 위원장님은 기성이 옆에 다가와 그의 꿈과 관련된 고민 앞에 함께 서주며 등을 토닥여주었다.

의정부YWCA는 고양시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 대안학교인 ‘누리다문화학교’와 연계하여 다래교실을 진행했다. 대부분이 중국 청소년으로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초급 수준이

다. 그래서 비전페스티벌을 참여하기 전 ‘한국어도 부족하고 국적도 달라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을까?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1박2일의 짧은 시간에도 자라며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배우가 꿈인 베트남 친구 채린이는 영화제작소 ‘눈’과 함께하는 영화제작 체험에서 드디어 배우가 되었다. 영화의 스토리를 짜고 감독, 촬영감독, 배우, 연출 등 각각 역할을 맡아 직접 촬영하고 연기하는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 즐거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툰 대화에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알려주려 하자 아이들은 팔을 크게 흔들며 이게 더 재미있다고 그대로 하자고 한다. 적극적인 태도에 나도 웃음이 난다.

댄스뮤지컬 ‘사랑한다면 춤을 춰라’ 관람은 한껏 즐기고 환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을 보면서 ‘훗날에도 행복했던 이 시간을 회상하며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아이들도 있겠지’라고 생각해본다. 그 때문일까? “저희요~ 발표시간에 댄스 할래요~” 1년간 다래교실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에 예고 없는 댄스를 추겠다고 당찬 마음을 전한다. 아이들은 다래교실에서 세상을 향해 한걸음을 더 내딛고 있었다. YWCA와 함께 걸으며 찾아낸 꿈의 지도를 들고 빛을 내기 시작했다.



돌봄의 '공공성'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서울YWCA가 1966년 가사직종을 개발, 교육생을 모으고 훈련해 일자리를 배출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다. 이를 맞아 돌봄 역사를 돌아보고 돌봄노동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유럽 선진사례를 기초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30일(수) '서울YWCA 돌봄사업, 역사와 전망-일하는 여성, 건강한 사회, 돌봄사업 50년' 포럼을 열었다.

김혜옥 서울YWCA 여성능력개발팀 부장

지난 50년간 돌봄운동의 발전은 가히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1966년 11명으로 시작된 YWCA 가사돌봄 사업은 2016년 현재 전국 46개 YWCA에서 4000명이 활동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YWCA가 배출한 가사 돌보미 인력은 지금까지 17만 명에 달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을 일정 부분 YWCA가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ILO(국제노동기구) 100차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된 후 2015년 고용노동부가 '가사서비스 고용개선 법률안'을 검토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IT기술 발달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인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홈클린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돌봄서비스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국가, 지자체, 인증회사가 개입

그러나 돌봄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돌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점이 생겨나는 변화와 달리 YWCA는 돌봄회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교육해 배출한 돌봄회원의 이탈률은 높아져 활동회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YWCA가 사회공헌성을 지키면서 돌봄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 연

구원은 '영국·프랑스·벨기에 돌봄서비스 동향-근로자 중심의 돌봄노동의 해외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돌봄노동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의 경우 국가가 직접 돌봄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훈련된 인력을 다양하게 공급해 산업화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돌봄표준위원회가 25개 부문별 기술위원회에 교육훈련 전략수립과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서비스 직종 무료실습과 보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다. 채용도 지역 신문, 취업잡지, 고용주 네트워크, 취업박람회 등 지역사회 중심에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구직활동이 안될 경우 실업자로 인정받는 등 사회안전망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활용 고용수표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개인, 기업, 국가가 고용수표를 구매해 사회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내가 옆집 A씨를 직접 고용해 아이돌봄을 맡긴 후 고용수표를 발행하면 A씨가 은행에 가서 고용수표를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고용수표제도의 가장 큰 역할은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현찰로 직접 지급했던 비공식 가사노



1966년 서울YWCA가 '시간제 가정부' 파견을 위해 교육하고 있다.

동이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서 공식노동 영역으로 들어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해 세금부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벨기에는 2014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바우처 제도를 마련했다. 사용자가 인증기업에서 바우처를 구입하고, 노동자는 서비스 보수로 바우처를 받아 인증기업에 제출하면 노동자와 인증기업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관계를 맺는 제3자 고용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인증 받은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에게 품질관리를 하게 하고 그 능력에 따라 바우처 관리기업을 평가한다.

돌봄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영국은 국가 중심,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벨기에는 인증회사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 3개국 사례처럼 돌봄노동이 비공식 영역에서 공식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체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 공식화되어야 한다.


이은영 한국YWCA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장은



100년을 향한 YWCA 돌봄운동 방향을 모색한 돌봄포럼

'YWCA 돌봄운동의 미래'를 위해 YWCA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돌봄사업을 시작한 YWCA가 사회적, 공익적 요소를 유지하며 돌봄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직업인식 개선, 근로인력 고령화, 체계적인 돌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YWCA 돌봄사업은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직종과 직업개발, 교육을 지속해왔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영역이자 비공식노동으로 간주된 돌봄 직종을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업의식을 높이면서 여성권의 향상에도 기여했다. 돌봄 협동조합 결성과 가사서비스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돌봄사업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돌봄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인식전환과 더불어 실질적인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날은 YWCA 돌봄운동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노력이 본격화된 자리였다. 

오키나와 너머 평화를 보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평안한가? 평화로운가? 일상의 물음표를 던지며 잠시 쉬어가는 쉼표를 찍기 위해 그렇게 평화를 찾아 떠났다. 아름다운 햇살, 파란 하늘, 초록색 은총 가득한 나무와 풍경을 바라보며 오키나와는 눈부신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전쟁과 평화

이렇게 밝은 오키나와 풍경 뒤에 감춰진 전쟁의 아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시키면서 처참한 민간인 학살이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다는 현실과 마주하며, 마을 방공호이자 일본군 창고와 군병원으로 쓰였던 동굴 이토카즈 아부치라 가마 속에서 과거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엄마가 보고 싶어, 빛이 보고 싶어, 물이 먹고 싶어, 배고파, 집에 가고 싶어, 편하게 잠들고 싶어, 살고 싶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긴 가마 속을 거닐며 젊었던 아니 너무나 어렸던 그들의 간절한 절규와 마주한 시간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인 나로서는 두렵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빛이 보고 싶어 팔, 다리가 잘린 채 기어서 한 줄기 빛을 찾다가 죽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내내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 다른 동굴 치비치리 가마는 미군 폭격을 피해 일본군과 주민들이 숨었던 장소다. 오키나와가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격전지가 되면서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상태로 빠져든다. 일본군의 강요된 세뇌와 선동으로 주

정은영 대구YWCA 국장

민들 사이에 집단자결 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된다.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독극물을 나누어주며 자결을 강요했다. 부모가 자식들을 죽인 뒤 동반 자살하는가 하면, 어머니는 딸을 죽여야 했다. 동굴 속에서 꼬챙이 하나 쥐고 자결해야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한살짜리 아이 시신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참담한가. 자결로 충성을 맹세하는 군국주의가 가져온 역사의 비극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장을 돌아보며 역사의 아픔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확하게 후세에게 전하는 노력,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외침이 마음에 울려왔다.

여성과 평화

그럼 1945년 태평양전쟁 이후 오키나와의 전쟁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종전 뒤 미국 통치를 받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지만 아직도 미국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 내 미군기지 74~75%가 오키나와에 밀집해 있다. 오키나와 영토의 20%가 미군 기지인 이곳에서 과연 전쟁은 오래 전 끝났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오키나와YWCA 활동가인 다카자토 스즈요씨는 ‘군대와 기지를 허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모임’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고통은 오키나와 일상에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의 오랜 주둔 결과 살인, 강간, 폭력 등 미군에 의한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군



일본군에 의한 강제 집단자결 장소인 치비치리 가마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비롯해 1995년 미군 3명에 의한 여학생 강간사건, 10년 전 어린이 성추행사건, 올해 발생한 행방불명 여성강간·살인사건은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은 일’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 자연과 경제, 문화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며 미군기지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군사훈련장으로 활용되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군사훈련에 투입한 전투기들의 소음피해와 높아지는 반미 감정으로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그리고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현재진행형이었다.

생명과 평화


오키나와를 동양의 하와이라고 부른다.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햇살을 선물로 받은 축복의 섬이다. 오키나와 최북단에 있는 헤도곶은 굳이 시멘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절벽에 부딪치는 파도를 보고 소리만 들어도 만족이다. 오키나와 성지로 불리는 대석림산은 굳이 오르기 편한 계단과 안내판이 없더라도 쪽쪽 뻗은 나무와 희귀한 들들의 형상만 보아도 만족이다.



다카자토 스즈요씨가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한 주민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지정 오키나와 천연기념물인 맹그로브숲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던 체험 가이드의 미소와 우리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만족이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느낌의 미학이 있는 생명운동은 우리가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평화의 여정을 떠나며 YWCA 공동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각각 다른 모습의 우리가 모여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행복한 일상의 평화를 경험했다. 평화라는 것이 너무 거창하고 대단해서 어려운 숙제로만 여겼는데 따사로운 햇살을 바라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포근한 잠자리에 들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평화였다.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상의 평화인가.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며, 슬픔 있는 곳에 위로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키나와를 너머 평화를 본 순간이 내 삶의 ‘평안’이었다. 

상생과 나눔, 협력 사회적 기업 키운다

최지영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 간사



청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마을벽화 그리기를 하는 공공디자인이즘



대전 사회적기업 '마당극패 우금치'가 광주 금남로에서 공연하고 있다.

“이제 막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가 되었다. 디자인 속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과 힘이 있다고 믿으며 시작했다. ‘디자인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목소리’라는 기업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지역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공공디자인이즘 허진옥 대표의 수상소감이다. 공공디자인이즘은 충북 청주에 자리 잡은 사회적기업으로 세 명으로 출발해 일곱 명으로 ‘사세’를 늘려가고 있다. 시각·공간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캠페인 기획, 네트워크 등을 진행하며 특히 디자인의 공공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인 도우누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도 하다. 송인옥 사무국장은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돌봄 사회적기업도 양적, 질적

으로 많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가족을 맡겨야 할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적 ‘기업’으로 살아남기

2월 5일(월)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공디자인이즘과 도우누리를 비롯해 16개 기업이 ‘우수 사회적기업상’을 받았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3개 기관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상’을 받았다.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우리은행이 후원한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해 사회적기업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시민사회가 정부, 기업과 협력해 주관하는 상으로 뜻


을 더하고 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1,672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힘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목적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땀과 눈물은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군분투는 수상소감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또 다른 ‘사회적’ 힘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회단체 등이 그렇다. 올해엔 서울시교육청,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울산항만공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상’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세대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인정해주는 상을 받아 더욱 기쁘다. 앞으로도 개인과 지역이 상생하는 우수한 기업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도 사회적기업 정신을 살려 마무리되었다. 수상기업 중 마당극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펼치고 있는 대전에 위치한 (사)마당극패 우금치 류기형 대표가 즉석공연으로 수상소감을 대신해 멋진 공연을 선물했다. 류 대표의 창 공연은 사회적기업의 출발이 된 ‘상생과 나눔’의 취지를 더욱 빛내주었다. 참석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외친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면 너도나도 따뜻한 성장’이라는 구호처럼 말이다. 

· 우수 사회적기업상

지역	업체명	선정 사유
광주	(주)잇다	청년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미디어접근권 지원
대구	(주)청소하는마을	근로자 처우개선과 인식개선
대전	(사)마당극패 우금치	청년들에게 문화교육 제공, 공동체 의식 기여
부산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돌봄 일자리창출, 윤리경영, 전문서비스 제공
울산	(주)살림	주민주거 환경개선 봉사활동
인천	주식회사 미추디자인	장애인특수학교 디자인교육, 취약계층 고용지원
제주	소담제주영농조합법인	복지기관 농산물 기부, 공익활동 참여
강원	주식회사 광고발전소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기	행복한마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무료진료, 장애인주치의, 민주적 운영
경북	(주)나우	재능, 재정기부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
경남	(주)엔티코리아	고용환경 개선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전북	제이피섬주식회사	취약계층 고령자 우선고용, 근로복지 향상
전남	(주)쿠키아	취약계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충북	(주)공공디자인이즘	공공디자인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충남	주식회사 천군만마	취약계층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
서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 사회적기업 활성화 공로상

기관(기업)명	선정 사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활성화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참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기여
서울시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적기업 구매 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울산항만공사	우선구매, 판로확대, 구매상담회 등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YWCA에서 YMCA로 사무국 이관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은 한국YWCA연합회는 올해를 끝으로 사무국 활동을 마무리한다. 사회적기업에 친화적인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12월 민관협의체로 출범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YWCA연합회가 맡았다. 2017년 2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차기 사무국은 한국YMCA전국연맹이 담당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사무국으로서 지역네트워크 조직정비를 통해 행정기반과 지원체계 마련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YWCA,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정부, 기업, 사회적기업, 유관단체로 구성된 15개 광역시도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인천YWCA와 서귀포YWCA도 지역네트워크 사무국을 맡아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YWCA와 시민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Y-틴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중점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YWCA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YWCA와 순천YWCA가 건립을 마쳤으며, 여수YWCA는 내년 3월 1일 제막을 앞두고 있다.

인천YWCA 일본군 주둔자리에 주먹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올해는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지 140년이 되는 해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인천은 일제 수탈과 식민지 아픔의 통로가 되어 아직도 곳곳에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인천YWCA는 지난 6월 8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비롯한 11개 시민단체와 함께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인천YWCA는 여러 단체와 협력해 인천시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바른 역사 알리기를 하면서 인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5개월간 96회 릴레이

거리모금과 홍보를 진행했다. 평화의 걷기 한마당, 위안부 영화 상영, 인천 '평화의 소녀상' 제작 토론회, 소녀상 제작을 위한 손수건 판매 등으로 200여개 단체와 9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9,0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지난 10월 28일(금) 인천 부평공원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평화의 소녀상'을 제막했다. 인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부평공원은 일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는 미군부대가 자리해 반세기 이상 외국부대가 있던 곳이다.

인천 '평화의 소녀상'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앞을 향해 우뚝 선 모습으로, 평화의 정착과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인천YWCA는 앞으로도 시민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혜선 인천YWCA 부장

순천YWCA 169개 단체, 30개 어린이집, 39개 학교, 535명 참여



순천에서 YWCA를 비롯한 15개 단체가 주관한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이 제안되었다. 바로 3월 16일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6월 29일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소녀상 제막을 위한 모금운동, '귀향' 영화상영과 캠페인, 강연회, 평화나비 문화제

등을 펼쳤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도 열었다.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169개 단체, 어린이집 30곳, 초·중·고 39개 학교, 개인 535명이 후원에 참여했다. 순천시 지원금을 포함해 11월 17일 8,600여만원이 모아졌다.

10월 15일(토) 순천조례호수공원 원형광장에서 순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광주 나빌레라무용단이 아픈 상처를 보듬고, 치유와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연을 펼쳤다. 순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김정민 순천YWCA 부장

순천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만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순천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고 실현하는 이들의 모임'을 만들어 일본군 '위안부' 합의무효 활동,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

기 위한 활동,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여수YWCA 시민 저금통으로 내년 3.1절에 세운다



여수YWCA는 2006년부터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당연히 여수YWCA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대회의에서 제안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적극 동의하고, 다른 단체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연대회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동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 부활을 강력히 막고,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명 할머니들의 고통을 되새기면

김상희 여수YWCA 팀장

서 다시는 인류역사에 전쟁 성노예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다양한 모금운동이 진행되었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금통을 만들어 배포했다.

76개 단체와 220여명의 개인이 참여한 결과 9월 1일 목표금액 6,000만원을 넘은 7,000여만 원이 모였다. 성금동전 정리에 청소년들이 동참해 모금활동에 뜻을 더했다. 여수 '평화의 소녀상'은 내년 3·1절에 맞춰 제막하며, 장소는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주민들과 여수를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을 일깨워주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수YWCA는 세상을 향해 바로서는 역사의 현장에 앞장설 것이다.

평화비에 담긴 의미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은 2011년 12월 14일 1,000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고,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된 조형물이다. 작가 김윤성·김서경 부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조선여성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일제에 짓밟힌 꽃다운 청춘도 표현한다.

왼쪽 어깨에 얹은 새 한 마리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일본의 사죄를 기다리다 먼저 간 할머니들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가족과 고향을 떠나 단절되어야 했던 아픔은 거칠게 뜯겨진 머리로,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에 맞선 분노는 움켜쥔 두 손으로, 단호하면서 굳은 의지는 동글납작한 얼굴로, 도망가지 못하게 신발을 뺐겠다는 증언과 고향에 돌아와도 편히 정착하지 못한 할머니들의 방향은 발꿈치가 들린 맨발로 형상화되었다.

소녀가 할머니가 되기까지 긴 시간, 오랜 세월 정의회복을 기다려온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이자 쉽게 잊히지 않는 역사를 증거하는 의미로 바닥에 그림자 형상이 새겨 있다. 가슴에는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혼이자 진정한 해방을 꿈꾸는 나비 한 마리가 있다. 빈 의자는 추모의 뜻과 연대의 참여 의미이자 소녀들의 역사와 그녀들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생각하는 공간이다. 전국 50여곳에 세워졌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에도 건립되었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잠깐 눈 감았다 뜨니 50년 세월입니다”

회원YWCA 원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원로에게 듣는다' 이번 호에서는 정정자 청주YWCA 명예이사를 이해정 청주YWCA 사무총장이 만났다.



정정자 청주YWCA 명예이사 약력

- 1973~1977 청주YWCA 3대 회장
- 1984~1988 청주YWCA 7대 회장
- 1987~2005 청주YWCA 사업위원회
- 1987~1991 청주YWCA 탁아소운영위원회
- 1992~2002 청주YWCA 장학위원회
- 1996~2002 청주YWCA 일하는여성의집운영위원회
- 2002~2006 청주YWCA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위원회
- 1987~1993 청주YWCA 인사위원회위원장
- 1987~2006 청주YWCA 지도력양성위원회
- 1991~2007 청주YWCA 재정및건물관리위원회
- 2002~2007 청주YWCA 건물관리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YWCA와 만남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내가 마흔 한 살이 되던 1965년 봄 안풍자 선생을 통해 YWCA를 알게 됐지요. 안 선생에게 YWCA 사업목적과 다른 지역의 활동을 전해 들었어요. YWCA 사업이 하나님 말씀이 맡기신 일임을 깨닫고 힘을 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립도 하기 전이라 청주시내 각 교회 여신도회장과 회원들의 명단을 들고 YWCA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1965년 7월 11일 창립총회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지도력과 회원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때부터 청주YWCA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회관건축 위해 눈물로 기도

- YWCA를 조직하려면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저에게 YWCA는 사람이예요. YWCA를 통해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축복입니다. 나 같은 시골뜨기도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주고, 아이를 길러내는 것처럼 온 정성을 쏟아 YWCA를 키우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했어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선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신앙도 자라날 수 있었어요. YWCA에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더욱 기도하고 단합하면서 이겨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 청주YWCA 3대·7대 회장, 사업위원회, 탁아소운영위원회, 장학위원회 등 대부분 위원회를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요.

“50년 세월은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지나가요. 희미하게 뒤를 돌아보면 청주YWCA회관 건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한 세월과 당시

지역의 많은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을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준 일이 눈에 선해요. 그때는 파출부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번에 따라 배정을 받고 일했는데 그들이 이후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볼 때 참 행복했어요. 또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과 일하는 여성의집이 새로 생겼을 때, 빵과 과자를 굽고 취직과 개업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 있었어요. 특별히 청주YWCA 50주년 행사 때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동안 함께 수고한 사람 중 떠나신 분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 청주YWCA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처럼 하면 되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어려운 세월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YWCA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YWCA나 하나님의 역사는 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사도행전 1장 8절)‘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방법

-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놀라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YWCA를 세우시고 섬김과 겸손한 믿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눈앞이 캄캄하다가도 어



1975년 청주YWCA 회관이전 특별예배 사회를 맡은 정정자 회장

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로, 우리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 이사님이 본받고 싶은 지도력은 어떤 분이었는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연합회 실행위원과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박에스터 선생님, 연합회 실행위원이자 지방위원회 위원 김순갑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청주YWCA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연합회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도우셨어요. 한번은 청주YMCA 여성부로 들어올 것을 제안받아 김순갑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상담을 하니 놀라서 서울에서 바로 오셨어요. 김순갑 선생님 아니었으면 청주YWCA가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또 청주YWCA에 함께 쓰임 받았던 동역자들과 후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 이사님에게 YWCA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기만 한 구경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매 순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YWCA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냥 YWCA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YWCA와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판도라’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회 위원장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여사는 말한다. “나는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바로 1986년 4월 26일 폭발한 소비에트연방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그 후 피폭자들의 고통을 고발한 소설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 서문에서 그렇게 말했다. 과거 일어난 핵발전소 폭발 이후 고통스런 이야기를 현재 시점에서 회고하며 이런 사고는 미래에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예언적 경고다. 그리고 정말 30년도 안된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픽션이 현실로 다가오다

개봉 9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판도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 즉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원전 밀집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는 재난이라 분명 픽션인데 생생한 현실처럼 다가오게 만든다.

주인공 강재혁(김남길 분)은 마을에 들어선 한별원전에서 일어난 사고로 아버지와 형을 잃고 혼자된 어머니와 형수 그리고 조카와 살며, 매일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는 청년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서기 전엔 가난하지만 아늑하고 한적하며 평화롭고 정겨운 어촌마을이었다. 동네 옛 모습을 그리워하면서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역시 한별원전 기술자로 근무한다. 영화배우 김남길의 연기 속에 묻어낸 진정성은 청년 강재혁을 그려내기에 정말 탁월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핵발전소의 불! 마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사탄으로부터 받아먹은 후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최초의 인간처럼, 현대인은 금단의 불인 핵을 연료로 발전(發電)하는 핵발전소를 세워놓고 이제 영원히 끄지 못하는 그 불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미국 쓰리마일,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그리고 그 다음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제발 아니기만 바랄 뿐이다. 그러나 누굴 믿고 바랄 수 있을까. 작은 사고만 나도 자신의 이익과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나라에서... 영화 <판도라>는 주인공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그런 사고가 현실이 된다면 누가 강재혁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안전한 나라, 얼마나 믿을 만한 정치환경에서 살고 있는 걸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허구성

영화 <판도라>에서 노후원전 폐쇄를 진언하는 박평섭 소장(정진영 분)에게 오히려 불 한번 붙여놓고 물만 채워 놓으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라며 웃어넘기는 관리자들을 만난다. 핵을 뜻하는 영어 단어 ‘nuclear’는 깨끗하다는 뜻의 ‘clear’에 새롭다는 ‘new’를 합쳐 새롭고 깨끗하다는 기분을 더해주려고 하지만 핵발전 현실은 정반대다.

발전소 수명은 30~40년 길어야 60년을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하는데 사실은 버릴 수가 없다. 연료 자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면 영원히 유익해야 하는데, 사용 후 연료봉에서 뿜어대는 방사능 반감기를 다하는 10만 년 동안 그 쓰레기 연료봉을 치울 길이 없어 꼼짝없이 관리해야 한다. 10만년! 그것도 100년마다 800년간 콘크리트로 씌우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인간이 오래 살아야 고작 100년을 사는 숫자와 핵쓰레기 처리를 위한 10만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

해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버린 쓰레기 더미를 왜 후손 대대에 유산으로 넘기려 하는가.

이미 노심용용(멜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상부 허가만 기다리는 공무원들, 비상훈련을 가장해서 실내 대피령을 내리라는 국무총리, 건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 사고규모에도 외부로 새는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는 고위관리들, 판단을 못 내리는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시민들과 고속도로에 차를 버리고 방사능 바람을 피해 달러가는 주민들을 본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기에 더욱 분노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 <판도라> 화면은 격납고가 터지는 엄청난 재난의 순간을 블록버스터급으로 재현하고 군중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더욱 현실성을 높였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목적으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는 YWCA에게는 더 고무적인 작품이다. YWCA 회원들은 핵발전의 허상과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야 한다. 올 한해만 지진과 여진이 수백차례 일어나고 있는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을 막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만큼은 당장 취소하도록 관계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는 모든 핵발전소를 멈춰야만 한다는 ‘잘가라! 핵발전소’ 운동을 더욱 강력히 지속하고, 희망을 주는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새롭게 해준 영화를 만든 제작진들이 고맙다. <판도라> 속 청년 재혁이 묻는 질문을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아니면 안전하고 평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청년의 눈으로, 한걸음 더 YWCA에 다가가다



YWCA 청년기자단 1기가 12월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청년기자단은 청년의 시각과 감각으로 YWCA 활동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SNS로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개월간 YWCA 청년기자로 활동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청년기자 정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취재현장을 발로 뛰는’ 의미로 청년기자단 이름을 ‘Y러너’로 정했다. 우리 스스로 정한 이름인 만큼 YWCA 소식을 발빠르고 생생하게 전하려고 노력했다.

청년기자단은 대학·청년Y 운영위원과 회원 5명, 일반 대학생 3명으로 모두 8명이 활동했다. YWCA 회원이 아닌 나를 비롯한 일반 대학생들은 청년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YWCA와 시민운동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명은 YWCA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청년기자단은 YWCA 활동현장과 청년 이슈를 소개로 기사를 쓰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YWCA 활동이 궁금해 회원YWCA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직접 전화도

김보영 YWCA 청년기자단 1기 하면서 보석 같은 현장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기사작성을 하면서 YWCA를 한걸음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었다. 8월에 열린 ‘YWCA 전국회원대회’, ‘한일YWCA협의회’와 같은 뜻깊은 자리에도 취재기자로 참여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열린 정기모임은 청년기자단으로 묶인 친구들과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멘토링 시간에는 시사블로거 ‘미디어몽구’ 김정환씨, SBS 스포츠뉴스 권영인 기자와 같은 언론인 초청 특강과 SNS플랫폼 이해, 취재와 기사작성법 등의 강의로 개인역량과 교양을 쌓았다.

청년기자단 활동의 가장 큰 의의는 ‘참여’다. 각자 대학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 발로 뛰고 취재현장을 다니면서 청년으로서 ‘사회’의식을 갖게 되었다.

글로, 카드뉴스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기획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청년인 우리들에게 자양분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 정기모임 이후 뒤따르는 꿈 많은 청년기자들과 친목을 다지고 다양한 사람과 관계맺는 법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흘러 1기 활동은 여기까지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YWCA 청년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좋은 사람을 만나며 멋진 경험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아참, 청년기자단의 콘텐츠는 YWCA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YWCA 위장결혼식 현장’ 인권현장 표지석으로 기록되다

편집실



1979년 11월 24일 서울YWCA에서 열린 위장 결혼식 현장



한국YWCA회관 앞에 설치된 서울시 인권현장 표지석

서울시 명동에 자리한 한국YWCA회관 정문 앞 바닥에 작은 표지석이 생겼다. ‘YWCA 위장결혼식 현장’이란 이름의 가로×세로 35cm 크기 황동판. 인권수호를 위해 시민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역사현장에 설치한 ‘서울시 인권현장 표지석’이다.

서울시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1894년부터 2000년까지 사건 중 시민 의견을 들어 43곳을 인권현장으로 선정하고, 38곳에 표지석을 설치했다.

“홍성엽군과 윤정민양이 여러 어른과 친지를 모시고 혼례를 올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979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30분 서울YWCA 강당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주례 함석헌 선생을 비롯해 재야인사 윤보선, 백기완, 한명숙, 김병걸 등 500여 명의 하객이 몰렸다.

사회자인 김정택 기독교청년협의회장이 결혼식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결혼행진곡은 울리지 않았다. 신랑입장과 동시에 사방에서 유인물이 배포됐고, 신랑은 우렁차게 민주주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경찰에 이어 계엄군이 들이닥쳐 98명이 연행되고, 거리시위를 벌이다 4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한 달간 불법 감금돼

상상을 초월한 폭력과 고문을 당한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은 신부 ‘윤정민’은 민주회복국민회의 상임대표 윤형중 신부의 성과 ‘민주정부’ 앞글자 순서를 바꿔 지은 가공인물이었다.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난 뒤 민주인사들이 처음 모인 이날 결혼식은 독재세력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회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시위현장이었다. 위장결혼식으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가짜결혼식까지 하면서 저항해야 했던 처절한 역사였다.

서울시 인권현장 표지석은 민주화운동의 등지였던 명동성당,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한 서울 YMCA회관, 6.10항쟁선언 현장. 호주계와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 폐지에 중요한 몫을 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태일 분신현장 등에도 설치되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된 YWCA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유적 현장탐방을 위해 조성한 ‘6월항쟁 민주유적’ 코스에도 포함되었다. 미래유산은 서울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싱크머니 제2차 씨티강사 교육



YWCA 싱크머니 제2차 씨티강사 교육이 11월 30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청소년 금융교육 싱크머니 이해와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에는 16명의 씨티은행 임직원이 참석했다. 싱크머니 경험하기, 강의기법, 청소년에 대한 공감과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씨티강사 교육은 매해 두 번 열린다.

Y-틴 대표간사 회의

Y-틴 대표간사 회의가 11월 30일(수) 연합회에서 열렸다. Y-틴 4개 지역위원회(동부, 북부, 서부, 중부)를 대표하는 간사들과 연합회 실무자가 참여했다. 올해 지역별로 진행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내년 1월에 열리는 Y-틴 전국협의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청소년의 Y-틴 운동 역량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찾아가는 탈핵캠페인 세종시에서 펼쳐다



세종YWCA 주관하는 '찾아가는 탈핵캠페인'이 11월 24일(목) 오후 1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탈핵생명위원회(위원장 원영희)와 세종YWCA 실무자 등 20명은 이날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과 '신고리 5·6호기 반대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핵발전소 위험성과 탈핵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100여명의 세종시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만서명 기독교본부 발족



기독교 사회단체와 주요 교단은 12월 9일(금)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가라! 핵발전소 10만서명 기독교본부'를 발족했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예수살기 등과 예장통합, 성공회, 기장, 기감 등이 참여했다. 기독교본부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이 추진 중인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의 10%인 기독교인 10만명 서명방기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교회 300교회 세우기 등을 펼칠 예정이다.

복지기관장모임 제주연수



올해 4분기 YWCA 복지기관장 연구모임이 11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제주에서 열렸다. 전국 16개 가운데 13개 복지기관이 참여한 이번 모임에서 복지기관장들은 복지환경 다변화에 따른 현장 대응 정책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제주YWCA와 서귀포YWCA를 방문하고, 제주 4.3항쟁 현장을 견학했다.

'NCS 활용' 직업훈련실무자 워크숍



직업훈련실무자 워크숍이 11월 24(목)부터 25(금)까지 연합회와 서울유스호텔에서 열렸다. YWCA가 2015년부터 개발한 가사지원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직업훈련기관 적용 이론과 현장적용 사례를 배우고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24개 회원YWCA에서 27명의 실무자가 참여했다.

YWCA 활동가 6명 '소비자의 날' 포상



우리나라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시작해 꾸준한 활동으로 지평을 넓혀온 YWCA 활동가들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각종 '소비자의 날'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12월 2일(금)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이 포장을, 최은주 서울YWCA 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말숙 인천YWCA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창욱 세종YWCA 증경회장·윤정순 광주YWCA 국장·김근순 서울YWCA 소비자모니터회원이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민간이 처음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법(제)개정 토론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법(제)개정 토론회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심대여성인권센터,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동주최로 11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Y-틴위원회(위원장 안수경)를 비롯한 청소년 전문가들과 단체가 참석해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을 모색했다. 255개 청소년·여성·교육단체는 지난 10월 검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규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오렌지캠페인'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쉼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 대표로 구성된 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 네트워크는 1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대전YWCA 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현안을 협의했다. 이어 유엔 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캠페인 테마색인 주황색 스카프를 두르고, 가정폭력·성폭력 추방을 외치며 'UNITE 오렌지데이 캠페인'을 펼쳤다. 11개 회원YWCA 여성폭력관련 시설장과 대전YWCA 김정민 회장·유덕순 사무총장, 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주한 미국대사관 공공외교부 외교관 다니엘 라·김대영 전문위원을 비롯해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 보육사 하반기 교육



YWCA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협력사업인 생명꿈나무 돌봄센터에서 활동하는 보육사 하반기 교육을 12월 16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했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9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10개 센터 교사, 이명혜 연합회 회장, 유석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실무자 등 50명이 참석했다. 2017년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센터 현장의 안전교육 강화에 관해 논의했다.

YWCA 씽크머니 경향금융대상 수상



YWCA가 다문화가정 금융교육을 실시한 공로로 경향금융대상을 받았다. 한국YWCA연합회는 12월 15일(목)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경향금융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신용회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경향신문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했다. YWCA는 2012년부터 씨티재단 지원으로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모색을 돕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인 다래교실(다문화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사회적기업 혁신프로젝트 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사회적기업활성화지원센터(이사장 안재웅)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1억 원을 지원했다. 11월 25일(금) 오후 2시 연합회 강당에서 전달식을 열고, 첫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두손컴퍼니, 리블랭크, 합굿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에 지원금을 수여했다.

박영순 위원 '평화의 색동조각보' 디자인 기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인 박영순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 명예교수가 '2015 국제여성 평화걷기'를 위해 만든 '평화의 색동조각보'

디자인을 한국YWCA연합회에 기부했다. 30여 년간 오색빛깔 색동을 갖가지 조각보로 만들어온 박 위원은 오방색·오간색을 조합한 35가지 색으로 남북,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색동조각보'를 디자인했다. 지난해 5월 국제여성평화 걷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상징하는 가로, 세로 10미터짜리 대형 조각보가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YWCA 목적문 이해 출간



한국YWCA연합회는 활동가들이 YWCA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YWCA 목적문 이해'를 펴냈다. 2015년 아카데미위원회 목적문 교재연구팀이 만들었으며 2016년 아카데미교육에서 시범 활용했다. 최만자 Y아카데미 위원, 최순양 이화여대 초빙교수, 이인경 계명대 교수, 이숙진 Y아카데미 위원이 필

자로 참여했다. 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했다. 가격은 6,000원이다.

길 위의 평화학교 '한반도 통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한반도 통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12월 16일(금) 연합회 강당에서 제5차 길 위의 평화학교가 열렸다. 김주현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강의로 통일 이후 한반도 변화를 살펴 보면서 장미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정부, 기업, 민간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 한영수 부회장 등 자원 활동가와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6 김필레리더십캠프

김필레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한국YWCA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김필레리더십캠프'가 12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연합회와 YWCA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정신여자중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YWCA 설립자이고 정신학교 학

생·교사였던 김필레 선생이 기독교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이뤄낸 업적을 살펴보고 적용점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정신여자고 구교사가 있는 연동교회와 서울YWCA를 탐방하고, '여성과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12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는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하는 김필레리더십캠프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지정기부

정영숙 전 연합회 실행위원(서울YWCA 이사) : 연변지원특별위원회 후원금 1,000만원

인사

- 사직 엄효정 간사(중점운동국 생명비전연구소) 2016.11.11
- 복직 이주영 부장(중점운동국 성평등·국제협력) 2016.12.21
- 흥현정 부장(지역운동국 협력사업) 2017.1.1
- 송록희 부장(중점운동국 탈핵생명·대학청년) 2017.1.1
- 휴직 최수신나 부장(지역운동국 Y아카데미) 2017~2018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6. 6. 1~11.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강수현,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고예린, 고은희, 박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복례,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김태연,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보람, 백정미, 백해진, 서명희, 성동숙,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인숙, 심명자, 심은옥, 안정희, 양종연,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원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슬이,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경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천진, 이행자, 이해련,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순,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신나,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심, 흥현정, 흥현화, 황홍백	10,648,000
개인 기부	김귀옥, 김미, 민하은, 박용옥, 손서정, 오경선, 이진용, 전인선, 조성민, 조효은, 최혜실	1,209,740
협력 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약전평강교회, 정동제일교회, 한양대 여성교회	5,967,300
기관과 단체	NH농협은행(명동지점), (주)늘찬 솔루션, 더 나눔, 르 뽕(명동성당점), 마포구청 선교신우회, 명성약국,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점), 에세레 젤라또(명동점)	873,060
교육과 모금	2016 WCD 평화걷기대회 사진전	14,000
회원 YWCA	군산YWCA, 동해YWCA, 서울YWCA, 여수YWCA, 전주YWCA	3,127,565
부속시설	창원YWCA어린이집, 청주YWCA어린이집	1,124,250
합 계		22,963,915

북부

동해YWCA

안지원 팀장

경력단절 여성 특강



여성가족부 지원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으로 '2016 회원대회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강'을 11월 3일(목)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열었다. '빅마마'이혜정 요리연구가가 '소중한 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네일아트, 다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400여명의 회원과 구직여성들이 참여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주한대사 배우자회'와 난민 신생아 모자 만들기



주한대사 배우자회(Ambassadors' Spouses Association in Seoul)와 미얀마 난민 신생아 모자 만들기 봉사활동 '나눔드림'을 11월 23일(수) 진행했다. 세네갈, 이란, 이집트, 잠비아,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페루 주한대사 배우자 7명이 만든 모자는 내년 1월 교육봉사단을 통해 미얀마에 전달된다. 서울 YWCA는 2006년부터 태국-미얀마 난민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속초YWCA

정인숙 간사

'죽음준비' 웰다잉 지도자과정 수료

2016 웰다잉 지도자과정 기본교육 수료식을 11월 19일(토) 진

행했다.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 이번 과정은 '죽음의 의미,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 죽음준비' 등의 내용으로 참다운 삶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본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심화과정을 거쳐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인천YWCA

김다설 간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인천YWCA Y-틴과 대학·청년Y가 11월 19일(토)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진행했다. 독거 어르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Y-틴, 대학·청년Y 회원, 위원 80여명이 네 가정에 연탄 1600여장과 먹을거리를 전달했다. 연탄구입을 위해 청년·청소년 회원들은 1년간 나눔장터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왔다.

춘천YWCA

육여진 간사

춘천YWCA-YMCA 연합예배



세계YWCA-YMCA 기도주간을 맞아 춘천YWCA와 춘천YMCA는 11월 22일(화) YWCA 강당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모두 평등한 우리'라는 주제로 연합예배를 열었다. 심재훈 목사(직장사역연합)가 '주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뒤 참석자들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뜻을 나누는 촛불결단식을 진행했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키다리학교 김장 나눔



고양YWCA 키다리학교 학생들이 11월 12일(토) 중점운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장김치 150kg을 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여성쉼터, 주거지원 시설,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했다. 키다리학교 학생들은 지난 봄부터 텃밭농사로 지은 수확물을 여성쉼터에 정기 기부해왔다.

남양주YWCA

이종은 간사

남양주YWCA-YMCA 연합예배



남양주YWCA와 남양주YMCA는 11월 21일(월) YWCA에서 연합예배를 열었다. 정석현 목사(순복음 평강교회)가 '모두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공평한 하나님 안에서 사회 약자들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설교했다. 이어 지금 국가상황을 비상시국으로 보고 통성기도를 진행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창립 20주년 감사축제



창립 20주년 감사축제를 11월 24일(목) 버들캠핑장에서 열었다. 1부는 초대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 사무총장, 회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이천진 목사(한양대 교목실장)가 진행을 맡은 2부는 색소폰, 판소리, 해금, CCM 등 콘서트로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었다. 1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축제에서 부천YWCA는 지난 20년간 활동을 바탕으로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김장김치 1만kg 지역나눔



수원YWCA는 KT&G복지재단 경기본부(본부장 송인철)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의 후원으로 11월 28일(월)

과 29일(화)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담근 1만kg의 김장김치는 자립생활시설, 저소득층과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회원 한마음대회



안산YWCA 회원 한마음대회가 11월 11일(금) 안산 수암봉에서 회원 산행으로 진행되었다. 위원회별로 미션을 수행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등 회원과 실무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에 펼친 회원증모운동 결과를 보고하고, 우수 회원증모자에게 시상도 했다.

안양YWCA 김순태 간사

안양YWCA-YMCA 시국기도회



안양YWCA와 안양-군포YMCA는 11월 16일(수) 연합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안양YWCA 강당에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YWCA-YMCA 이사위원, 실무자 등 70여명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 상처받은 부정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예배 후 호계동 일대를 돌며 촛불 평화행진을 벌였다.

의정부YWCA 정진아 팀장

'행복한 상상학교' 축제에서 탈핵캠페인



지역사회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마을축제 '행복한 상상학교'에서 탈핵부스를 열고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이 11월 19일(토) 의정부시 행복로 미디어루프에서 주최한 이번 축제엔 주민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YWCA는 탈핵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신규원전 건설 반대 이유를 알렸다. 자연 에너지를 상징하는 초를 색종이로 접어 붙이고, 아이들 손에 묻힌 물감으로 탈핵을 표현하는 참여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150여명이 탈핵 서명을 했다.

파주YWCA 서동희 간사

자원지도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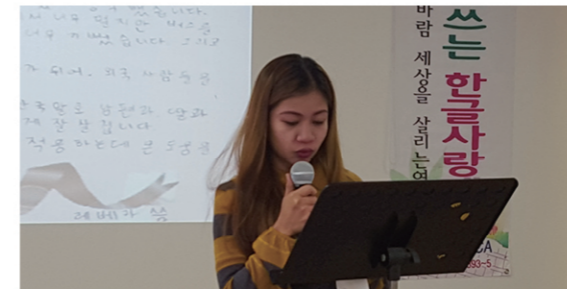


파주YWCA는 11월 4일(목) 이사-위원이 참여하는 자원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명진숙 연합회 지역운동국장이 자원지도자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자원지도자들에게 긍지와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중부

논산YWCA 권연정 간사

다문화가정 '편지로 쓰는 한글사랑대회'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편지로 쓰는 한글사랑대회'를 11월 23일(수) YWCA 회관에서 열었다. 한글편지쓰기대회 1차심사를 통과한 7명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며 경합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들의 전통춤 공연과 장기자랑도 진행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부모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한글편지로 쓰면서 한국문화를 더욱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한글사랑대회에는 다문화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YWCA 이다정 간사

창립70주년 비전워크숍



대전YWCA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비전워크숍을 열었다. 11월 23일(수) 자원지도자와 실무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경 연합회 실행위원 진행으로 70년을 돌아보며 100년을 향한 비전과 방향을 구상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힘을 합치니 희망이 보인다'며 YWCA가 지역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제천YWCA 김미경 간사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지원 바자회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꿈나무 바자회'를 11월 17일(목)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열었다. 친환경 제품과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판매와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홍보를 진행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보육센터 운영에 전액 쓰인다. 덕산면, 화산동에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 중인 제천YWCA는 취약계층, 맞벌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야간보육과 교육,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YWCA 정상란 간사

후원의 밤 사랑나눔음악회



천안YWCA 후원의 밤 사랑나눔음악회가 12월 1일(목)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에서 진행되었다. 퓨전 국악팀 '가아비노'의 금관 5중주, '다인양상블'의 관현악 3중주, '비바보체 솔로이시츠' 비올라 연주, 어린이 치어리더 '점핑 엔젤스' 공연, 동화구연 등이 펼쳐졌다. 지역의 다양한 계층과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된 음악회에 기관 관계자, 천안YWCA 회원,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천안YWCA 운동기금과 장학금 등으로 사용된다.

청주YWCA 박보람 간사

세광고등학교 '애들이 밥먹자'



청주YWCA는 11월 25일(금) 충청북도, 충북농협과 공동으로 세광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학생들은 쌀케이크, 쌀떡 만들기 체험에 이어 우리 쌀이 먹을 거리로 변하는 과정과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배웠다. 청주YWCA는 16회에 걸친 '애들이 밥먹자'로 지역에서 아침밥 먹기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급여 끝전 모으기로 어려운 이웃돕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한 '급여의 끝전 모으기로 청소년시설과 취약가정에 물품을 후원했다. 충주YWCA와 부속 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충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올리 직원들은 2015년부터 2년 간 급

여의 일부분을 모은 후원금으로 11월 18일(금) '친구청소년쉼터'를 찾아 김치냉장고를 전달했다. 이어 12월엔 복지사각지대가정에 연탄 1500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부

광양YWCA 이현숙 간사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11월 22일(화) 광양YWCA 무료급식소에서 진행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소외계층을 위해 해마다 주관하는 이번 행사엔 광양제철소 임원단 부부, 광양YWCA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지역에서 재배된 배추 2500포기를 구입해 김장을 담갔으며, 광양시가 추천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150가구에 전달했다.

광주YWCA 손유영 부장

'그때 우리는 산에 있었다' 두레산악회 30주년



광주YWCA 성인클럽을 대표하는 두레산악회 3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이 11월 16일(수) 열렸다. 회원 250여명이 모

인 가운데 봉사상 수여식과 두레산악회 뜻을 모아 마련한 '북한어린이돕기' 기금 전달식이 진행했다. 이어 30주년 회고록 <그때 우리는 산에 있었다> 발간 기념회도 열었다. 30년을 이어온 두레산악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광주지역 여성지도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YWCA 박수현 부장

목포 농·특산물 판매장터 서울에서 열다



목포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목포 농·특산물 판매장터'가 서울에서 열렸다. 목포YWCA는 11월 29일(화)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에서 장터를 열고 지역에서 생산한 잡곡, 고구마, 멸치, 달걀, 잣갈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서울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여성의 눈으로 마을을 보다' 최종보고회



서귀포YWCA는 제주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성의 눈으로 마을을 보다' 최종보고회를 11월 15일(화) 서귀포YWCA회관

에서 열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한 서포터즈단은 17개 마을 주거지역, 공원, 공공시설, 대중교통, 학교를 경제, 돌봄배려, 안전성, 편리성, 환경친화성 기타의 6개 지표로 조사했다. 최종보고회를 거쳐 만들어진 보고서는 여성친화도시 설계를 위한 제주시 정책제안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순천YWCA 문세인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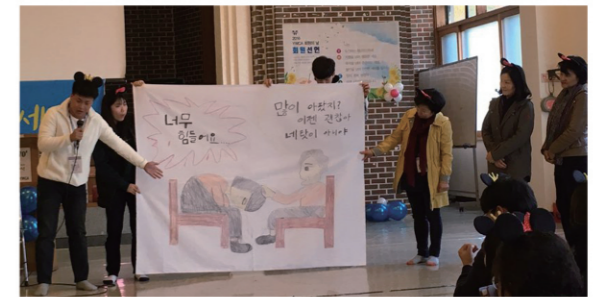
'함께 가요! 낭만 밤바다' 이사연수



순천YWCA는 11월 6일(일)부터 7일(월)까지 여수 썬비치호텔에서 '함께 가요! 낭만밤바다'라는 주제로 이사연수회를 진행했다. 자원지도자, 실무자들의 화합을 위한 공동체 시간, 정리수납 방법, EM활용법 등을 강의한 '나는 강사다'를 비롯해 '성평등으로 세상을 이룬다' 주제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1070 청춘이 함께 만드는 희망세상' 회원의 날



여수YWCA 회원의 날이 '1070 청춘이 함께 만드는 희망세상'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토) 여수제일교회 수련원에서 열렸

다. Y-틴 중점운동인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청소년 회원과 성인 회원의 역할극, 개사곡과 율동, 그림 그리기 등이 진행되었다. Y-틴, 대학·청년Y를 포함한 모든 회원 세대가 역사를 함께 공유하며 더 이상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박근혜 퇴진을 위한 거리캠페인



전주YWCA는 11월 3일(목)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박근혜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탄' 시국선언을 했다. 이어 11월 4일(금)부터 11일(금)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효자동 KT사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제주YWCA 이우리 간사

결혼이주여성 제주향토요리대회



제1회 결혼이주여성 제주향토요리대회 '자청비를 찾아라'가 11월 15(화) 소이쿠킹에서 열렸다. 롯데면세점이 후원하고 제주YWCA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옥돔국,

빙떡, 문어죽과 같은 제주음식을 만들면서 한국문화를 알아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수상자에게는 고국 가족 두 명을 2박3일 제주여행에 초청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됐다. 결혼이주여성 11명이 참여했다.

동부

거제YWCA 흥윤정 팀장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제16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9일(토)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거제시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와 소프라노 크로스오버 가수 허진설,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 민들레합창단의 협연과 바이올린, 첼로 솔로공연 등이 무대를 장식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홀로어르신 겨울나기 지원 일일차집



북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어르신 겨울내의 마련을 위해 '홀

로어르신 겨울나기 지원 일일차집'이 11월 10일(목) 열렸다. 기업과 회원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이번엔 모아진 수익금은 지역 공공기관과 협의해 홀로어르신에게 겨울내의를 전달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찾아가는 EM교육



대구YWCA는 11월 8일(화), 17일(목)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EM교육'을 진행했다. 대구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와 아동양육시설인 '에텐원'에서 EM을 소개하고 우수성을 알렸다. EM미스트, EM비누 만들기 체험을 마련해 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EM으로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렸다.

마산YWCA 박주옥 부장

어린이 다문화 경제교육 페스티벌



마산YWCA는 11월 10일(목) 6~7세 어린이 9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경제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다문화 의상제

협, 캄보디아 나무팽이·중국 향초 만들기·필리핀 크리스마스 가랜드 만들기 체험활동, 먹을거리 체험을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체험을 통해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다는 것과 경제 개념을 배웠다. 창원시 마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봉사자들이 부스를 운영해 더욱 현장감 있는 행사가 되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



사천YWCA는 11월 28일(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8회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를 열었다. 예선을 통과한 가요 부문 5팀, 댄스부문 5팀이 이날 본선에서 열띤 경연을 펼쳤고 가요, 댄스부문에서 각각 금·동상을 시상했다.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문화형성과 문화감성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



버스·자전거 이용의 날 캠페인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1월 16일(목)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젊음의 거리에서 펼쳤다.

'대중교통이 수험생들의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수험생과 시민 1400여명에게 떡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수험생을 격려하고 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성을 홍보했다.

진주YWCA 고명정 팀장

다문화가정 예술체험·문화탐방



진주YWCA는 9월부터 1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과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체험·문화탐방활동 '진주다수다! 예술의 향기, 나눔의 향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책 육아, 캘리그래피, 아로마테라피, 전통매듭 강좌를 20회에 걸쳐 교육한 뒤 문화축제, 박물관·미술관 관람,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창원YWCA 이소영 간사

회원의 날



창원YWCA 회원의 날이 11월 29(화) YWCA 강당에서 열렸다. YWCA 5대과제 이해를 위한 중점운동별 체험부스, 회원간 유대강화를 위한 미니운동회와 동아리별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이사위원, 회원 90여명이 화합하며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김장철 물가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포항YWCA는 물가안정을 위해 11월 23일(수) 김장철 물가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였다. 김장철 물가조사를 위해 대표적 재래시장인 죽도시장과 대형할인마트 6곳을 찾아 양념류와 재료의 가격을 조사했다. 또한 YWCA회관 앞에서 형산강 다리까지 양복 2.2km를 행진하며 차량과 행인들에게 물가안정 중요성을 알렸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가 부당하게 가격인상을 할 수 없도록 감사하는 역할을 했다.

YWCA 청년기자단

2기 모집합니다!

대상	대학생 청년(YWCA 회원 우대)
인원	10명 이내
활동내용	매달 첫째주 토요일 월례회의 필수참석 6개월 활동 : 2017년 1월 ~ 6월
특전	수료증, 활동증명서 발급 전문가 특강 3회 예정 취재비, 교통비 지급(비수도권 거주자)
지원	기간 : 2016년 12월 12일(월)~22일(목) 방법 :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 내려받아 이메일(ywcapr@hanmail.net) 제출 문의 :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02-774-0230)

12월 · Dec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청주Y 재정모금 콘서트	2 강원Y 사무총장협의회 부천Y 부천시 위킹맘 가사지원서비스 협약	3 제주Y 제1회 청소년 랩 페스티벌
4 속초Y 창립기념일 (1986.12.4)	5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부천Y YWCA· YMCA공동기도회 수원Y 성탄예배 순천Y 프로그램협의회	6 북부사무총장협의회 (12.7) 여수Y 프로그램정책 평가회 전주Y 2016 회원한마당 포항Y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반 개강	7 경기지역위원회 창원Y 김장바자회	8 연합회 성탄예배 안양Y 돌봄송년의 밤 울산Y 이사직원 연수 및 성탄예배	9 잘가라! 핵발전소 기독교본부 발족식 사천Y 사랑의 김장 담그기 서울Y 창립 94주년 기념예배 & 성탄모임 서울Y 창립기념일 (1922.12.9) 하남Y 창립기념일 (1991.12.9)	10
11	12 고양Y 성탄콘서트	13 마산Y 이사직원 송년의 밤 인천Y 송년이사회 여수Y 성탄예배 포항Y 소망의 집 및 가정폭력상담소 창립 기념예배 및 후원의 날	14 어린이집 4분기 원장 연구모임(~15) 거제Y 청소년유해 환경캠페인 대전Y 성탄예배 의정부Y 성탄예배	15 고양Y 평생교육 성과공유회 광양Y 한려대 교수 대상 성명등 강좌 광주Y 성탄축하예배 및 이사위원 홈커밍데이 성남Y 돌봄협동조합 회원들의 날 춘천Y 직업개발부 송년의 밤	16 2016년 생명꿈나무 돌봄센터 하반기 보육사 교육 서귀포Y 정책협의회 안산Y 돌봄과살림 송년회	17 안양Y Y-틴 회원대회 인천Y 메리웨이 페스티벌 목포Y Y-틴 확대임원 협의회 청주Y 김꿈기회찾기 프로젝트 송년모임
18	19 김필레 리더십캠프 (중학교)(~20일) 광주Y 서부지역 아카데미 춘천Y 성탄예배 남원Y 창립기념일 (1991.12.19)	20 광양Y 성장계획 최종 평가모임(연합회) 남양주Y 성탄예배 안양Y 성탄예배 & 홈커밍데이 전주Y 불의날 캠페인 포항Y 이사, 직원 소통의 날 충주Y 창립기념일 (1985.12.20)	21 안산Y 성탄예배 진주Y 소통 한마당	22 대구Y 성탄예배 목포Y 살림돌보미 월례회 속초Y 성탄축하예배 제천Y 창립기념일 (1986.12.23)	23 대전Y 방과후아카데미 즐거움 제천Y 창립기념일 예배	24
25	26 김필레 리더십캠프 (고등학교)(~27일)	27 광주Y 직원송년의밤 진주Y 송년 감사 한마당	28	29	30 속초Y 종무식	31

1월 · Januar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고양Y 신년예배 대전Y 시무식 성남Y 신년예배 청주Y 청년Y MT(~3일) 천안Y 시무예배	3	4	5 연합회 성탄예배	6	7
8	9	10 여성폭력시설장 네트워크 모임	11 평택Y 창립기념일 (2000.1.11)	12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14일)	13 울산Y 신년하례회	14
15	16	17 남양주Y 제21회 정기총회 안양Y 제30회 정기총회 대전Y 제31회 정기총회 창원Y 제28회 정기총회 천안Y 제27차 정기총회	18 Y-틴 전국협의회 (~20일) 대전Y 제69회 정기총회	19 강릉Y 제29회 정기총회 광주Y 제88회 정기총회 속초Y 제28회 정기총회 성남Y 제29회 정기총회 청주Y 제52회 정기총회 성남Y 창립기념일 (1988.1.19)	20 재난대응 성인지정회 기획회의 동해Y 제23회 정기총회 안산Y 제22회 정기총회 광명Y 창립기념일 (1986.1.20) 안산Y 창립기념일 (1986.1.20)	21 제주Y 창립기념일 (1955.1.21)
22	23 울산Y 제35회 정기총회	24 후원회 총회 거제Y 제26회 정기총회 마산Y 제51회 정기총회 사천Y 제29회 정기총회 서울Y 제95회 정기총회 서귀포Y 제25회 정기총회 수원Y 제48회 정기총회 순천Y 제67회 정기총회 여수Y 제35회 정기총회 인천Y 제47회 정기총회 진주Y 제39회 정기총회 춘천Y 제52회 정기총회 파주Y 제20회 총회 천안Y 창립기념일 (1989.1.24)	25 의정부Y 제38회 정기총회	26	27	28
29	30	31				

2월 · Februar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8일)	8	9	10	11 안산Y 청소년 사회적경제 기업 아이디어 제안대회
12	13	14	15 포항Y 제37회 정기총회	16 세종Y 창립기념일 (1948.2.16)	17	18
19 / 26 경주Y 창립기념일 (1954.2.19)	20 / 27	21 / 28	22 2016 카디락학교 활동나눔(~23일)	23 부천Y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제2회 정기총회	24	25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제목	필자	월	쪽
배워서남 주는 지도자, 김필례		1+2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김활란		3	
사회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유각경		4	
풍요한살, 박에스더		5	
충성하는 삶, 방신영 제2대 회장		6	
독립유공자, 홍에스더 제4대 회장		7+8	
여성독립운동가 황에스더		9	
한국 최초의 여성 체육인 김신실		10	
YWCA 행정질서 세운 27대 회장 김에마		11	
부드러운 리더십 제29대 회장 손인실		12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명혜	1+2	4p
돌봄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영수	3	4p
십만 회원이 힘차게 울리는 YWCA 새벽종소리	원영희	4	4p
돌봄노동의 사회화	이은영	5	4p
한반도 위기와 YWCA 평화운동	장미란	6	4p
YWCA 청년운동 부활을 위한 선결과제	정유진	7+8	4p
나비가 되고 싶은 94세, Y의꿈	조은영	9	4p
100년, 세상의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이명혜	10	4p
새로운 여성주의, 새로운 리더십	백혜진	11	4p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김은주	12	4p

말씀 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생명의 열망, 다말을 위한 변호	지형은	1+2	5p
하나님의모성	김은혜	3	5p
말씀이 육신이 되어	김은혜	4	5p
가족과 회원의달 공동체 예배	편집실	5	5p
탐욕이 다수결인 시대	이숙진	6	5p
'혐오'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하여	이숙진	7+8	5p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송가성	9	5p
겨자씨 하나님 나라	김진희	10	5p
시가서와 시간표	김진희	11	5p
하나님의개입	장상	12	5p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한눈에 보는 정기총회-신임회장단 소개	편집실	1+2	6p
2016~2017 한국YWCA 5대 정책과제	편집실	1+2	8p
신임 공천위원, 당선자 실행위원 소개	편집실	1+2	9p
회원YWCA 신임회장 소개	편집실	1+2	12p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정당 초청 토론회	편집실	3	6p
100차 YWCA 탈핵불(火)의 날 캠페인	편집실	3	8p
전국에서 함께한 100차 탈핵 캠페인 화보	편집실	3	10p
20대 총선 '화려한' 여성정책 각당별로 살펴보니	편집실	4	6p
TV 드라마 속 여성 역할 다시보기	윤세민	4	9p
'안분 권리' 위해 모니터 활동 강화해야	이경순	4	11p
가사노동 보호입법 추진현황과 과제	표대중	5	6p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을 가다	편집실	5	8p
YWCA 돌봄노동 50주년 기념회	편집실	5	10p

전쟁이사라지는 그날까지 평화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편집실	6	9p
희생자에서 변화 주도자로 나서는 세계 여성들	편집실	6	12p
2016년 대한민국 청년은 왜 불안한가	김원진	7+8	6p
청주YWCA는 왜 '청년'에 주목하는가	이혜정	7+8	8p
설문조사 : YWCA 청년 80.6% "희망 있다"	편집실	7+8	10p
전국회원대회 전체스케치	편집실	9	6p
사진으로 보는 전국회원대회	편집실	9	8p
전국회원대회 참가기	편집실	9	12p
전국회원대회 시상식	편집실	9	18p
YWCA 협력운동을 돌아보다	박은실	10	6p
청소년 금융교육 '핑크머니'	민혜진	10	10p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다래교실'	진사무열	10	12p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아이들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이은영	10	14p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운동 '애들아 밥먹자'	권여울	10	16p
협력운동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박란희	10	18p
'혐오를 넘어서' 새로운 페미니즘	최형미	11	6p
여성혐오에 맞선 '젊은' 페미니스트	이민경	11	8p
청소년 성착취 체험 고발하다	안수경	11	10p
2016 한국YWCA 10대 뉴스 : 정의가 강처럼	편집실	12	7p

이달의 이슈

제목	필자	월	쪽
12-2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문제점과 그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	이나영	1+2	32p
필리버스터와 여성의 정치참여	김원홍	3	16p
세월호, 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가	박영대	4	14p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이상훈	5	34p
평화는 총구 아닌 신뢰에서 나온다	문정인	6	6p
신고리 5-6호기 건설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	김혜정	7+8	16p
제2의 옥시사태 소비자가 막는다	안정희	7+8	19p
동부지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평화행진	윤영인	11	20p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한국 '촛불'	정용인	12	12p

성평등

제목	필자	월	쪽
여성유권자로서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제 찾기	김은주	1+2	14p
20대 총선 대비 YWCA 성평등 의제 제안	김은경	3	13p
신교전화 한통이 생명을 살린다	조미영	4	17p
20대 총선 '성평등 국회' 희망을 열다	장윤선	5	13p
남녀임금 격차 해소는 모두를 위한 이득	편집실	6	14p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	조진경	7+8	14p
무엇이 교회를 성폭력 취약구조로 만드는가	이은혜	9	24p
2016 세계연합감리교 여성성직자모임 후기	김은영	10	22p
그녀들은 왜 '검은 시위'를 했는가	김예리	11	14p

청년

제목	필자	월	쪽
노동법 개정안의 심각성과 YWCA 청년운동에 대한 제언	권승준	1+2	16p
2016년 대학 청년Y 활동계획	손지수	3	18p
청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깨우자	김지영	4	20p
'청년정책,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	문윤희	5	16p
거제대Y 동아리 시작을 위한 발걸음	배유미	6	32p
남북 청년-청소년의 아름다운 동행	편집실	7+8	12p
소풍 삼아 놀러 갔다가 탈핵과 평화를 꿈꾸게 되다	정준영	9	22p
청소년 여러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사용해요	장선희	10	20p
2016 다래교실 비전페스티벌	박소영 정진아	12	18p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아시아 청소년 금융교육 국제캠프 국제포럼	편집실	1+2	18p
2016년 Y-틴 전국협의회	편집실	1+2	22p
2016년 대학 청년 Y 전국협의회	배유미	1+2	24p
2015년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천유란	3	20p
순천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	이귀선	3	22p
안양YWCA 창립 30주년 기념식	편집실	3	24p
5부 지역위원회 회원증포 워크숍	편집실	4	22p
연변 민들레문화교류협회 창립 12주년	배정미	4	24p
2016년 Y-틴 전국간사협의회	황진아 조아라	4	26p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시상식	편집실	5	18p
YWCA 전국회장단 연수	김수연	5	20p
춘천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	이연옥	5	24p
유엔 NGO 컨퍼런스 YWCA 워크숍	편집실	6	19p
성남YWCA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창립	홍성애	6	22p
대전YWCA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후원음악회	이다정	6	24p
2016 국제기사노동자의 날 캠페인	편집실	6	26p
4부 지역별 Y-틴 회원대회	천유란	7+8	24p
2016 사회적기업 주간 행사	이혜련	7+8	26p
부산YWCA 70주년 기념식	윤영인	7+8	28p
마산YWCA 50주년 기념식	박현주	7+8	30p
제9회 한일YWCA협의회	장미란	9	26p
여름방학에 펼친 청소년 탈핵캠페인	편집실	9	29p
2016 히로시마 순례	문윤희	9	30p
YWCA 사회복지기관 직원연수	김태연	9	32p
국내 최대지진, YWCA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은경	10	26p
북한수해지원 긴급모금	손서정	10	29p
소비자 권리와 집단소송제도	안정희	10	30p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편집실	11	22p
Y-틴이 만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천유란	11	24p
천안YWCA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	김명숙	11	26p
자적장애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생크머니	정석진	11	28p
서울YWCA 돌봄사업 50주년 포럼	김해옥	12	20p
YWCA 중견실무자 해외연수	정은영	12	22p
제3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시상식	최지영	12	24p

원로에게 듣는다			
제목	필자	월	쪽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편집실	1+2	26p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편집실	3	26p
최춘애 순천YWCA 증경회장	편집실	4	28p
김신옥 대전YWCA 증경회장	편집실	5	26p
박춘자 목포YWCA 명예이사	편집실	6	28p
최숙자 부산YWCA 증경회장	편집실	9	34p
조종희 세종YWCA 명예이사	편집실	10	34p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편집실	11	30p
정정자 청주YWCA 명예이사	편집실	12	28p

회원YWCA 현장을 찾아서			
제목	필자	월	쪽
서울YWCA 강남청소년수련관 뮤지컬 동아리 '드림하이'	편집실	1+2	28p
세종YWCA 봉사 동아리 '한사랑클럽'	편집실	3	28p
논산YWCA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름다운'	편집실	4	30p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 봄나들이	고명정	5	28p
부산YWCA '햇빛모아발전소' 건립	편집실	6	30p
복지관 어린이집 1·3세대 통합프로그램	신희정	10	32p
YWCA와 시민이 세운 '평화의 소녀상'	한혜선 김정민 김상희	12	26p

세계YWCA			
제목	필자	월	쪽
세계YWCA 이사회를 다녀와서	한미미	1+2	30p
일본YWCA의 평화와 탈핵 운동	최지혜	3	32p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CSC) 참가기	신보미 김상은 김예린	4	32p
YWCA와 YMCA가 가족으로 활동하는 나라들	이지애	5	30p
종교와 계층을 뛰어넘는 인도YWCA 예큐메니컬 운동	이지애	7+8	32p
미국 휴스턴YWCA 탐방	김은영	9	36p
난민여성을 위한 한국-태국 Y 청년들의 연대	김진주	10	36p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편집실	11	32p
세계YWCA 리타 무암보 프로그램 국장	편집실	12	14p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위대한 성군 다윗은 어디에?	김진명	1+2	35p
문화, '무엇'보다 '어떻게'를 묻자	양희송	3	30p
성경속 '화녀'를 문화예술로 상상하고 표현한다면	양희송	4	35p
그분이 나를 '안다'	최은	5	32p
주목할만한 기독교 영화	편집실	6	34p
의심과 믿음 사이, 영화 '곡성'	최대광	7+8	34p
여성의 생애, 영화로 말하다	조진화	9	38p
출판계 페미니즘 바람	조태성	10	38p
영화 '벤허'	강도영	11	34p
안전한 세상 물려주고 싶다 영화 '판도라'	원영희	12	30p

칼럼			
제목	필자	월	쪽
일본과 미국, 원폭피해자에 사죄부터 하라	강제숙	6	17p

인터뷰			
제목	필자	월	쪽
탈핵운동가 김해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편집실	11	16p
세계YWCA 리타 무암보 프로그램 국장	편집실	12	14p

강연			
제목	필자	월	쪽
히로세 다카시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 그 위험을 말하다'	편집실	11	18p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일곱 가지 과제	편집실	12	16p

기타			
제목	필자	월	쪽
그래프로 보는 한국YWCA	편집실	1+2	13p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다시보고 싶은 프로그램 베스트 10	편집실	4	13p
전국 회원YWCA에서 보내온 한국YWCA 창립 94주년 축하메시지		4	48p
2016 YWCA 전국회원대회		7+8	21p
Y사랑을 향한 당신과 나의 이야기			
제9회 한일YWCA협의회 '한일 여성이 만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		9	28p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위한 YWCA 회원결의문		9	55p
2016 성탄예배	편집실	12	6p
'위장결혼식 현장' 인권현장 표식	편집실	12	34p
청년기자단 1기 활동보고	김보영	12	32p



2016년 9월 22일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급여대상

해당분야 암치료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 암으로 진단 받은 말기암 환자

· 시범사업기관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14개 요양병원

· 시범사업 수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행위별수가)

※ 본인부담률 5%(산정특례등록 암환자), 식대 50% 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 : 1인실 상급병실 차액

· 서비스 내용

포괄적인 환자상태 평가, 전인적 돌봄 상담, 통증 및 신체증상완화, 임종관리, 사별가족관리, 영적 돌봄 서비스, 음악/미술 요법 등의 프로그램

〈시범사업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지역	기관명
인천 남동구	불날요양병원	충북 청주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인천 서구	청라백세요양병원	전북 익산	익산성모병원
인천 남구	해오름요양병원	울산 울주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경기 성남	보바스기념병원	울산 울주	이손요양병원
강원 원주	원주민중요양병원	부산 영도구	태종대요양병원
충북 청주	참사랑요양병원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